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최신동향 보고서 2019년 10월 4주

해외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대응 동향

< 목 차 >

1. 개요 및 배경
2. 주요국의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제재 사례
 - (1) 미국
 - (2) 유럽
 - (3) 아시아 및 기타 지역
3. 자율규제 및 업계의 움직임
4. 시사점

1. 개요 및 배경

- ▶ 어린이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의 개인정보 활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
-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숙지와 명백한 의지에 따른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더욱 취약
-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등 어린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
- 미 어린이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개정안 논의를 통해 연방통상위원회(FTC)에 어린이 및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관행을 전담할 별도의 부서(가칭 Youth Privacy and Marketing Division)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하는 사례도 등장

2019년 10월 4주

- 이와 관련,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린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분석

2. 주요국의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제재 사례

(1) 미국

- ▶ 미 FTC는 중국의 비디오 공유 앱 TikTok에 대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19.2월)
 - TikTok이 수집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위치, 사진 등이 포함되며, 미성년 이용자들에게 부적절한 유해 콘텐츠를 유통한다는 지적도 제기
 - TikTok은 이용자 본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에 기록된 개인정보 이외에도, GPS 정보, IP 주소, SIM 카드 기반의 위치정보, 단말기 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
 - FTC의 제재에 따라, TikTok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제작한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설정 등도 강화
- ▶ FTC는 온라인 패션 놀이 사이트 i-Dressup.com에 대해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¹ ('19.4월)
 -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해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를 위반한 혐의와 i-Dressup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보안을 제공하지 못한 문제점을 적발
 - i-Dressup에 대해 3만 5,000달러를 지불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까지 개인정보의 수집·공유·판매를 금지하며 매년 FTC에 규제 준수에 대한 인증을 제출하도록 처분
- ▶ FTC는 우크라이나에 본사를 둔 Wildec이 운영하는 Meet24, FastMeet, Meet4U 등 3개의 데이트 중개 앱(dating app)이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침해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 FTC 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² ('19.5월)
 - 해당 앱 운영업체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한 자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내세우며 COPPA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FTC는 13세 미만임을 밝힌 사용자가 해당

■

¹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4/ftc-alleges-operators-two-commercial-websites-failed-protect>

² <https://www.ftc.gov/news-events/press-releases/2019/05/app-stores-remove-three-dating-apps-after-ftc-warns-operator>

앱을 이용하고 다른 앱 사용자와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

- FTC는 Wildec에 대해 △3개의 앱에서 어린이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미성년자가 앱에 접속하기에 앞서 부모의 동의를 구하며 △모든 앱 버전에서 COPPA 및 FTC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
- ▶ FTC는 Google의 동영상 서비스업체 YouTube가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 어린이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에 대한 과징금 1억 7,000만 달러를 부과 ('19.7월)
 - COPPA는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 및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YouTube의 많은 채널들이 13살 미만 어린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
 - YouTube는 그동안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FTC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
 - 예컨대 2018년 한 해 동안 20개 이상의 아동 권익 단체들과 개인정보보호 시민단체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와 고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집 관행을 이유로 FTC에 YouTube에 대한 민원을 제기
 - 어린이를 위한 YouTube Kids에서는 관심 기반 광고가 이미 금지되어 있고 YouTube Kids의 모든 광고는 YouTube 정책 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제공되지만 YouTube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미비
 - 한편, YouTube는 부적절한 동영상 콘텐츠의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더 강력한 자녀보호 기능을 도입하여 어린이가 볼 수 있는 동영상 채널을 부모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FTC와의 합의에 따라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 이러한 조치에는 향후 4개월간 YouTube 및 YouTube Kids 사이트에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고, 댓글 및 알림 기능을 중지하며, 어린이용 동영상에 대한 표적광고 게재를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

(2) 유럽

-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ICO는 중국의 비디오 공유 앱 TikTok이 영국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19.7월)

2019년 10월 4주

- 이 조사는 2019년 2월 미 FTC가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규정 위반 문제로 TikTok에 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시작
 - ICO는 TikTok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TikTok이 제공하는 개방형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에서 성인들이 어린이에게 무분별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
 - TikTok은 GPS 정보, IP 주소, SIM 카드 기반 위치정보, 단말기 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 동영상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고,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에 있는 본사에 이전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관측
 - 가입 절차에서 전화번호를 인증받기만 하면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정책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를 무력화
 - ICO의 Elizabeth Denham 위원장은 TikTok의 관행이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각별하게 다루는 EU GDPR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 ▶ 아일랜드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DPC(Data Protection Commission)는 일부 온라인 업체들의 어린이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 ('19.9월)
- DPC의 Helen Dixon 커미셔너는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DPC의 “중요한 업무 영역”이라며,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면 EU GDPR에 따라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더 명확하게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Dixon 커미셔너는 조사 대상 기업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아일랜드 DPC가 유럽 지역에서 Facebook, Google, Apple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범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
 - 이와 함께 DPC는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이미 진행한 바 있는 공개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중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 한편, DPC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COPPA 개정이 논의되고 FTC가 YouTube의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진행
- ▶ 유럽의 규제기관들은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The Safe-KID-One’에 대해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제조사에 제품 리콜을 명령 ('19.2월)
- 해당 스마트워치는 GPS 위치 추적, 내장 마이크, 전화 및 문자메시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연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유럽소비자기구 BEUC와 독일의 Bundesnetzagentur 등은 해커가 스마트워치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 어린이 또는 청소년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거나 위치를 파악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

- 유럽연합 국가 간 신속한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EU집행위원회의 긴급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Products, RAPEX)에 따르면, 해당 스마트워치의 모바일 앱에서는 백엔드 서버와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이 진행되고 서버에 인증되지 않은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

(3) 아시아 및 기타 지역

- ▶ 중국은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중국 최초의 어린이 개인정보보호규정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을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 ('19.10월)
 - 이 규정은 인터넷 업체들이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전송·공개하기에 앞서 부모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 또한 업체들이 △데이터 처리의 목적·방식·기간·범위·이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어린이 데이터 수집 전용 약관을 제공하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며 △보안 조치의 현황에 대해 공개하고 △제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동의를 얻으며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의 정보에 대한 삭제·정정·접근거부·동의 철회권을 행사하고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 ▶ 브라질의 법무 및 공공안전부(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Safety, MJSP)는 표적광고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Google에 대한 조사를 추진 ('19.9월)
 - MJSP 산하의 소비자보호기구 Senacom(The National Secretariat of Consumer)에 따르면, Google은 미성년 소비자들의 전화번호, 위치정보, 사용 중인 기기유형 등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수집
 - Senacom은 2019년 8월부터 Google이 사용자 위치 데이터 수집 및 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 Google은 Senacom으로부터 이러한 조사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있으며, 아직까지 해당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3. 자율규제 및 업계의 움직임

- ▶ 온라인 광고 연합단체인 DAA(Digital Advertising Alliance)의 Accountability Program과 CARU(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는 앱 개발업체 HyperBeard의 어린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미 FTC에 회부 ('19.3월)
 - HyperBeard가 FTC에 회부된 것은 DAA의 자율규제 원칙(Self-Regulatory Principles)과 CARU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
 - DAA는 HyperBeard의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HyperBeard의 KleptoCats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3자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방식은 COPA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 근거한 DAA의 산업표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
- ▶ 글로벌 미디어 업계가 어린이를 비롯한 웹 이용자들을 온라인상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를 출범 ('19.6월)
 - 바람직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는 "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는 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
 - 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에는 △Adidas, Diageo, Mastercard, Procter & Gamble, Unilever와 같은 광고주 △WPP, Omnicom, Publicis Groupe, Interpublic, Dentsu 등 광고 대행사 △ NBCUniversal과 News Corp의 Unruly 등 주요 매체 △ANA(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WFA(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 ISBA, AAAA(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ies 등 주요 협회들이 동참
- ▶ Apple은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pple App Store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19.8월)
 - Apple은 2019년 9월부터 Apple App Store에 업로드 되는 어린이 대상의 앱에서 앱 이용자와 이용 방식에 대한 상세 정보 수집을 금지
 -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용 앱에서 제공되는 광고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

4. 시사점

- ▶ 해외 주요국들은 어린이 이용자의 취약성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는 방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재와 처벌이 적용되는 추세
 -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 등의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이용 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칙이 어린이 이용자에게 더욱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어린이 또는 법정대리인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배려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Reference

1. Bloomberg Law, "Irish Privacy Regulator Eyes Online Use of Kids' Data", 2019.9.6.
2. Caixin Global, "China Rolls Out Online Child Privacy Rules Empowering Parents", 2019.9.26.
3. The Washington Post, "Apple aims to protect kids' privacy. App makers say it could devastate their businesses.", 2019.8.20.
4. VentureBeat, "FTC fines YouTube \$170 million for alleged child privacy violations", 2019.9.4.
5. ZDNet, "Google faces probe over child privacy violations in Brazil", 2019.9.10.



발 행 일 2019년 10월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Tel 1544-5118

▶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